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의 계량적 분석

-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 연구업적을 중심으로 -

A Bibliometric Stud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이 종 욱(Jongwook Lee)*

양 기 덕(Kiduk Yang)**

목 차

- | | |
|-----------------|---------------------|
| 1. 서 론 | 4. 문헌정보학 연구의 계량적 분석 |
| 1.1 연구목적 | 4.1 연도별 분석 |
| 1.2 연구방법 및 한계점 | 4.2 저자별 분석 |
| 2. 선행연구 | 4.3 학교별 분석 |
| 3. 문헌정보학 연구자 분석 | 4.4 학술지별 분석 |
| 3.1 연령 | 5. 결론 및 요약 |
| 3.2 박사학위 취득학교 |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 및 이들의 연구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4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159명이 지난 10년간(2001~2010년) 발표한 국내·외 학술논문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논문 2,400편을 연도별, 저자별, 학교별, 학술지별 정량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의 왕성한 학술활동(1인당 연평균 1.51편의 논문발표), 국외 학술논문 생산증가(170편) 및 공동연구 비율의 증가(단독연구 52.75%, 공동연구 47.25%) 등의 연구행태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한국 문헌정보학의 국제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의 문헌정보학 교수임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박사학위 교수들의 높은 논문생산성이 나타났다. 학술 논문의 서지정보를 계량 분석한 본 연구는 학술논문 품질평가를 위한 다방면 인용 분석연구의 첫 번째 단계를 실행하였고,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학술 논문의 참고문헌 및 인용관계에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관련 학문분야 및 논문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is study assesses research patterns and tren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LIS) in Korea by applying bibliometric analysis. For the study, 2,400 peer-reviewed publications from 2001 to 2010(including conference proceedings) published by 159 LIS professors in Korea were analyzed by year, author, affiliation and journal. The study findings showed an increasing trend in collaboration(52.75% of total publications with single authors and 47.25% with multiple authors) among LIS professors in Korea, robust publication patterns of Korean LIS faculty(average 1.51 publications per year), and an increasing number in foreign publications(170 publications). The study results also suggested an internationalization of LIS in Korea. Specifically, the study found a higher rate of Korean LIS faculty with foreign degrees than in previous years as well as a higher publication rate of professors with international degrees. The analysis of publication patterns conducted by the study, which is a first step in our aim to establish a multi-faceted approach for assessing the impact of scholarly work, will be followed up with analysis of references and citations to evaluate the quality of publications.

키워드: 계량서지학, 계량분석, 문헌정보학, 연구업적, 한국

Bibliometrics, Quantitative Analysi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Output, Korea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기반실(nadoopro@gmail.com) (제1저자)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iyang@km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1년 10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1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11월 1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53-76, 2011. [http://dx.doi.org/10.4275/KSLIS.2011.45.4.053]

1. 서론

1.1 연구목적

1970년에 처음으로 문헌정보학분야의 전문 학회가 설립된 이후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는 꾸준히 양적 및 질적 성장을 하여왔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대학에서 연구업적 평가 제도의 도입과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 수의 증가, 그리고 학회지 발행빈도 증가(이명희 2002; 손정표 2003) 등의 요인으로 문헌정보학분야의 학술논문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문헌정보학분야에서는 학술논문을 계량화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문헌정보학 연구의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계량 분석 연구들은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가 몇몇 학회지에 국한되어있어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행태에 대한 연구에 한계가 있고 또한 국내외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 및 연구를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정량적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4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159명의 특성(연령 및 박사학위 취득학교)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이 지난 10년간(2001~2010년) 발표한 국내·외 학술논문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논문 2,400편을 연도별, 저자별, 학교별, 학술지별로 양적 분석하여 문헌정보학 연구자의 연구생산성 및 연구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방법 및 한계점

본 연구는 2011년 6월 기준으로 국내 4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들의 최근 10년(2001년-2010년)간의 연구업적(국내·외 학술논문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논문) 정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4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 포함) 수는 한국 문헌정보학과 옐로우페이지(www.libinfo.cjb.net)에서 35개 대학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0년에 신설된 경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제외한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34개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수는 총 159명(외국인 교수 2명 포함)이다.

159명의 교수 가운데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 중인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orean Researcher Information: KRI)¹⁾에서 정보가 공개된 146명에 대해서는 KRI를 통해 수작업으로 논문발표 실적을 수집하였으며, 정보가 비공개인 13명의 교수들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해 4명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9명의 교수들의 논문 실적은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과학기술 학회마을과 누리미디어의 DBPIA를 바탕으로 획득하였다. 또한 KRI에서 획득된 모든 학술논문 데이터는 과학기술 학회마을과 DBPIA를 비롯하여 국내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NAVER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였고, 해외 학술자료의 경우 Google을 통해 서지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였으며, 데이터 검증은 9월 한 달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의 기준으로는 전

1)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연구업적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는 대학들의 교수연구업적을 통합 및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34개 대학은 모두 한국연구재단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문가심사(Peer review)를 거쳐 발표된 학술자료(학술지 논문 및 해외 학술대회 발표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각각의 학술자료를 동등하게 계량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학술지가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 혹은 등재 후보지이면 전문가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체계평가, 주제전문가평가 및 패널 평가를 거쳐 등재후보지가 되고 난 뒤 2년 동안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Ko, Cho, and Park 2011) 평가 기준에 전문가심사 여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외 학술지의 경우 *Ulrich's Periodicals Directory*(<https://ulrichsweb.serialssolutions.com>)를 통해 전문가심사 여부를 확인하였고 해외 학술대회 논문의 경우 Google에서 해당 학술대회의 출판정책을 확인함으로써 심사 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해외 학술대회 발표논문(Conference Proceeding)은 학술지 논문과의 동등한 계량화를 위해 전문가심사를 거치고 논문집에 게재된 5쪽 이상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연구에 포함한 이유는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정보학 관련 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손정표 2003; 오세훈 2005)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학은 컴퓨터 공학 분야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정진식 2001; 오세훈 2005), 컴퓨터 공학 분야 학술논문에서 참고문헌의 19.6%(Lisee, Lariviere, and Archambault 2008)가 학술대회 발표논문인 것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이 무시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자료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문헌정보학과에 재직 중인 교

수(전임강사 이상)들이 발표한 학술논문 2,341편과 해외 학술대회 발표논문 59편을 포함한 총 2,400건이며, 이를 토대로 지난 10년간(2001~2010)의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의 연구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본 연구는 학술논문 품질평가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교수연구업적을 분석함에 있어 전문가심사(Peer review)를 거쳐 발표된 학술논문의 수 즉,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학술논문에 대한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학술논문 및 국외 학술대회 발표논문이 동등하게 각각 1편으로 분석되었으며, 저자의 수(예, 단독연구, 2인 이상의 공동연구) 또는 역할(예,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과 상관없이 저자 1인당 논문 1편으로 간주하였다.

② 자료수집 시점인 2011년 6월을 기준으로 국내 문헌정보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 교수들의 연구업적에 국한하여 분석 하였기에 학교별, 학과별, 교수별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③ 연구 분석의 대상을 전문가심사를 거친 학술지 논문과 해외 학술대회 발표논문(5쪽 이상)에 국한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연구 생산성 분석의 또 다른 요소로 사용될 수 있으나 전문가심사를 거치지 않은 학술저서, 보고서 등은 제외하였다.

④ 해외 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영문으로 작성된 것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수집된 자료 영어 이외의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작성된 자료는 제외하였다. 또한 해외 학술지라 함은 발행지가 국내가 아닌

것을 의미하며 SCI(E), SSCI 및 A&HCI에 등재된 학술지 중 발행지가 한국인경우는 국내 학술지로 간주하였다.

2. 선행연구

국내 문헌정보학분야의 학술논문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종종 시도되었다. 하지만 국내 문헌정보학의 계량 분석적 연구는 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계량적 접근방법으로 문헌정보학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자로는 한상완과 조인숙(1996), 정진식(2001), 이명희(2002), 손정표(2003), 오세훈(2005), 조인숙과 한미숙(2007), 정재영과 박진희(2011) 등이 있다. 한상완과 조인숙(1996)은 문헌정보학 분야 4개의 학회지 즉,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서지학연구』에 1970년부터 1995년까지 게재된 논문 총 684편을 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들의 성별, 연령, 학위, 전공분야, 공동연구여부, 1인당 논문 게재 편수, 논문의 주제, 언어, 참고문헌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들에 대한 분석을 하여 일반적인 계량연구와 다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분석결과 밝혀진 1인당 평균 논문 게재편수 1.7편을 비롯하여 전체 연구의 90%에 이르는 단독연구의 비율은 현재 및 미래의 문헌정보학 연구행태를 과거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적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정진식(2001)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한

국문헌정보학회지』와 『정보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339편과 이 논문들이 인용한 8,371건의 문헌을 바탕으로 어떤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추세를 밝히고 인용된 주요학술지를 파악함과 더불어 타 학문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인용정보를 이용하여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행태를 알려주고 학술지의 주제별 분포를 보여주어 문헌정보학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지 가운데 2개의 학회지에 실린 논문만을 분석한 만큼, 결과의 신뢰성에는 의문이 남는다고 하겠다.

이명희(2002)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3개 학회지 즉,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597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론 단계에서의 연구주제 및 방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가설의 유무 등의 분석을 통해 연구방법론의 방향을 제시하고 양적 및 질적 조화가 이루어지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 수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는 2000년 이후 각 학회지의 발행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동연구자 수 분석에서 1인 단독연구가 73.53%로 나타나 기존의 한상완과 조인숙(1996)의 연구와 비교하여 단독연구의 비율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손정표(2003)의 연구는 1957년부터 1970년까지는 3개의 전문기관지인 『도협월보』, 『도서관』, 『국회도서관보』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1967년부터 2002년까지는 5개 학회지와 문헌정보학과 창립 기념 논문집 또는 기념호에 발표된 논문 총 2,271편을 분석하여 1970

년을 기준으로 전후 연구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1967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63.1편의 논문이 생산되었으며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발표된 논문의 수가 전체기간 동안 논문의 약 61%가 차지하고 있다. 손정표는 이러한 현상이 1990년대에 도입된 “연봉제”, “교수 연구업적 평가제”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논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학문의 변화와 더불어 발전양상을 보여주는데 가치가 있다. 하지만 전문 기관지나 학과 창립 기념 논문집에 발표된 논문을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등하게 계량화하여 분석한 점 등 분석결과의 신뢰성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오세훈(2005)의 연구는 1946년부터 1969년까지는 『도협월보』, 『도서관』, 『국회도서관보』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고, 1970년부터 2004년까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총 2,571편의 논문과 이들 논문이 인용하는 문헌을 분석하여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즉, 14년간의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논문 생산성(55.7%)이 과거 45년 동안의 생산성(44.3%)을 능가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손정표(2003)의 연구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오세훈(2005)은 이러한 논문 생산성의 증가가 “학회지 간행빈도”, “연구 인력의 증가”, “대학 및 학회지의 평가 계획”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기관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등하게 비교하나 이러한 기관지에 발표된 논문의 경우

논문 심사과정에서의 전문가심사(Peer review) 실시 여부가 불분명하기에 두 유형의 논문을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조인숙과 한미숙(2007)의 연구는 5개 학회지 즉,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서지학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게재된 총 1,893편의 논문 가운데 국내 문헌정보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수 이상 192명이 게재한 논문 1,230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교수 101명(52.6%)이 10년 간 평균 1~5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57명(29.7%)이 6~10편, 26명(13.5%)이 11~15편, 5명(2.6%)이 16~20편, 2명(1.0%)이 21~25편, 1명(0.5%)이 30편 이상을 발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조인숙과 한미숙(2007)은 10년간 논문을 게재한 교수 1인당 평균 게재논문 건수를 15.6편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10년 간 평균 1~10편의 논문을 게재한 교수의 수가 전체의 82.3%이고, 192명의 교수가 총 1,230편의 논문을 쓴 것을 고려할 때 15.6편이라는 수치는 계산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재영과 박진희(2011)의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4개 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총 2,166편을 토대로 “현장연구”와 관련된 논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연구의 변화추이도 보여주는데 1985년부터 1994년까지 4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총 462편을 분석한 조인숙(1995)의 연구와 비교하여 논문의 수가 468%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손정표(2003)의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02년의 논

문 생산량이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생산량과 비교하여 약 200%정도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손정표(2003)의 연구에서는 학과 창립 기념논문집이 포함되었고, 오세훈(2005)과 이명희(2002)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듯 2000년대 이후에 연구 인력과 학회지의 간행빈도 증가 등으로 인해 학술논문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석·박사학위 논문을 계량화한 연구로는 문경민(1993), 손정표(2003b)의 연구와 더불어 송정숙(2010)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대학에서 생산된 문헌정보학 학위논문을 토대로 연도별, 대학별, 학과별, 전공별, 주제별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10년 동안 석사학위 논문은 총 1,296편, 박사학위 논문은 총 143편이 발표되었는데, 2001~2010년까지 학위논문의 생산량은 2000년 이전에 비해 4배로 확대되었다.

최희곤(1999)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단행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통한 계량적 연구를 하였다. 조사 대상이 되는 단행본은 1957년부터 1997년까지 43년에 걸쳐 발행된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단행본으로 5개의 서지자료로부터 총 767종의 단행본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희곤은 저자별, 주제별, 대학별, 핵심전공주제, 연도별 생산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단행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희곤(2003)은 다른 연구에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LISA*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Abstract*)와 *ISA*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를 이용하여 1971년 1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의 논문 가운데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논문 총 74건을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저자별, 주제별, 수록학술지별, 출신대학별, 최종학위별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생산성이 분석되었는데, 특히 가장 많이 수록된 학술지로는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가 4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와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가 각각 3편 등이었다. 이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국제적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최희곤(2001)의 이전 연구에서는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수록된 국내 문헌정보학자들의 논문을 분석하였는데,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논문의 수는 1972~2000년까지 총 14편이었다. 이처럼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논문 수가 현재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정진식(2009)은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 41명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구업적, 즉, 학술저서 총 49권과 학술논문 239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41명의 교수 1인당 1년 평균 1.16편의 학회지 논문을 게재했으며, 239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단독연구가 53.6%(128편)이었다. 특히 정진식(2009)은 연구업적의 평가에 있어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외에서도 문헌정보학 연구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경우가 있었으며, 많은 연구들이 주로 주제 분류를 통한 연구동향 파악을 위한 것이었다. Huanwen(1996)은 중국의 문헌정보학 연구를 주제 분류하여 전 세계적 추이와 비교하였

으며, Khan(1998)은 방글라데시에서 발표된 308편의 문헌정보학 논문을 대상으로 DDC 기반의 주제 분류하였다. 그 반면에 논문 수에 의한 연구평가를 한 대표적인 연구자에는 Adkins와 Budd(2006) 및 Mukherjee(2010) 등이 있다. Adkins와 Budd(2006)의 연구에서는 미국 문헌정보학 교수들이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SSCI 등재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수와 피인용수를 조사하여 학술활동이 가장 활발한 20명의 교수 순위를 논문 수와 피인용수에 따라 산정하였다. Adkins와 Budd(2006)는 교수들의 SSCI 학술논문의 수와 피인용수의 분석이 교수의 연구 생산성을 완전히 나타낼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문헌정보학 연구의 양적 규모 및 역사적 추세 파악 분석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Mukherjee(2010)는 아시아권에 속한 국가의 문헌정보학 연구를 Web of Knowledge에 기초하여 논문 수와 학술지 평균 영향력지수에 논문 수를 곱한 수치로 국가별 순위를 매기고 있다. 한국 문헌정보학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오나 연구 분석의 대상이 된 자료에 국내 공학 분야 교수에 의해 발표된 논문이 상당수인 것으로 보여 연구의 신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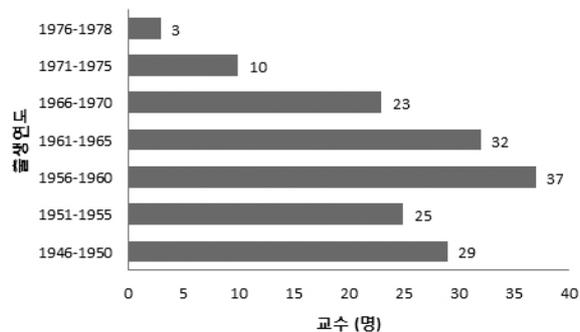
을 떨어뜨리고 있다.

3. 문헌정보학 연구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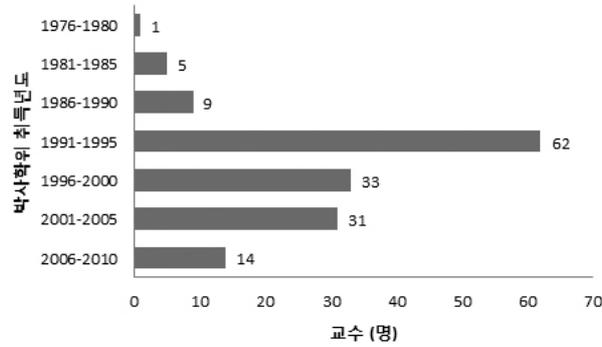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의 계량적 분석을 하기 전에 문헌정보학 연구자 즉, 교수 159명에 대한 연령과 박사학위 취득학교를 분석하였다. 이는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자의 특성(연령 및 박사학위 취득학교)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연구자들의 전반적 특성들과 논문 생산량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 생산성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3.1 연령

조사대상이 된 문헌정보학과 교수 총 159명의 평균 연령은 2011년 기준으로 만 51.7세였고, 연령이 가장 낮은 교수(만 33세)부터 높은 교수(만 65세)까지 30년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교수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으며,



<그림 1> 연령별 문헌정보학과 교수 분포



〈그림 2〉 박사학위 취득년도별 문헌정보학과 교수 분포

1946~1950년에 출생한 교수가 29명(18.24%), 1951~1960년이 62명(38.99%), 1961~1970년이 55명(34.59%)이었고, 1971년 이후에 출생한 교수가 13명(8.18%)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교수의 74% 정도에 해당하는 117명의 교수가 1951~1970년 사이에 출생하여 이들이 국내 문헌정보학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그림 2〉는 159명의 교수들의 박사학위 수여년도 분포를 보여준다. 현재 재직 중인 문헌정보학 교수 159명 중 97%인 155명(석사학위 제외)은 197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4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1978년에 박사학위논문이 국내에서 처음 생산(송정숙 2010)된 것에 비해 1년 빠른 1977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는 해외 박사학위취득자로 나타났다. 10년 단위의 분포를 보면, 1970년대 1명, 1980년대 14명, 1990년대 95명, 2000년대 45명이 교수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의 박사학위 수여년도 분포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났지만 1991~1994년 사이에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53명)가 전체의 34.19%로 높은 비율

을 보이고 있다.

3.2 박사학위 취득학교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 155명(석사학위 제외)의 박사학위 취득학교를 분석함으로써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의 경향이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1〉에서 나타난 것처럼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69%(107명)가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고 30.97%(48명)는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 국가 분포에서는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 전체의 83.3%(40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영국 10.42%(5명), 프랑스 4.17%(2명), 독일 2.08%(1명) 순이었다.

박사학위 취득년도를 5년 단위로 구분해보았을 때 1991~1995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 수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문헌정보학 교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박사학위를 취득한 문헌정보학과 교수 수는 1976년부터 1995년까지 증가하다가

〈표 1〉 박사학위 취득국가 분포

박사학위 취득년도	국내 박사학위(%)	해외 박사학위(%)	해외 국가 분포	계
2006~2010년	8(5.16%)	6(3.87%)	U.S.A(5) U.K(1)	14(9.03%)
2001~2005년	19(12.26%)	12(7.74%)	U.S.A(8) U.K(3) France(1)	31(20.00%)
1996~2000년	26(16.77%)	7(4.52%)	U.S.A(6) U.K(1)	33(21.29%)
1991~1995년	48(30.97%)	14(9.03%)	U.S.A(13) Germany(1)	62(40.00%)
1986~1990년	5(3.23%)	4(2.58%)	U.S.A(4)	9(5.81%)
1981~1985년	1(0.65%)	4(2.58%)	U.S.A(3) France(1)	5(3.23%)
1976~1980년	0(0.00%)	1(0.65%)	U.S.A(1)	1(0.65%)
계	107(69.03%)	48(30.97%)	U.S.A(40) U.K(5) France(2) Germany(1)	155(100%)

1996~2000년과 2006~2010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국내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 대비 해외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 비율을 비교하면 1996~2000년이 7.9:2.1인 것을 비롯하여 2001~2005년과 2006~2010년에 각각 6.1:3.9, 5.7:4.3이 되면서 해외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문헌정보학 교수로 임용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교수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내 대학교를 교수 수로 나열하면 〈표 2〉와 같다. 국내의 경우 총155명 가운데 89명(83.18%)이 3개의 학교 즉, 중앙대, 연세대,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학교에 분포가 집중된 이유로는 박사학위과정 개설연도, 명성, 지리적 요인 등으로 추측된다. 송정숙(2010)의 연구에서 2001~2010년까지 박사학위 논문 생산량이 가장 높은 학교가 연세대, 중앙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 최근 10년 내에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문헌정보학과 교수 수를 분석한 결과 연세대, 부산대, 성균관대, 중앙대 순으로 나타나 박사학위 논문 생산량과 교수임용 간의 관계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문헌정보학 교수들의 국내 박사학위 취득학교 분포를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들의 취득학교 분포와 비교해 볼 때, 박사학위 취득 학교에 따른 교수 수의 분포는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48명의 교수가 28개 학교(미국 18개교, 영국 5개교, 프랑스 2개교, 독일 1개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매우 다양한 분포를 나타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교수들이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블루밍턴), 뉴저지주립대(릿거스대), 위스컨신대(매디슨)에서(각 5명)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그 다음이 플로리다주립대(4명),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3명), 시라큐스대(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학교(상위 5개교)

박사학위 취득학교(국내)			박사학위 취득학교(해외)	
대학명	교수(명)	교수(명) (최근 10년 내 박사학위 취득)	대학명	교수 수(명)
중앙대학교	34	2	Indiana Univ. Bloomington	5
연세대학교	31	13	Rutgers, the State Univ. of New Jersey-New Brunswick	5
성균관대학교	22	3	Univ. of Wisconsin-Madison	5
부산대학교	8	4	Florida State Univ.	4
이화여자대학교	6	1	Case Western Reserve Univ.	3
기타(4개 대학)	5	4	Syracuse Univ.	3
			기타(20개 대학)	23
계	107	27	계	48

4. 문헌정보학 연구의 계량적 분석

4.1 연도별 분석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문헌정보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 교수들이 발표한 국내외 학술지 논문 및 해외 학술대회 발표논

문은 총 2,400편으로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은 지난 10년 동안 총 2,400편의 논문 생산성을 보여 연평균 240편, 교수 1인당 1년에 1.51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 학술논문의 경우 연평균

〈표 3〉 국내 문헌정보학자의 연도별 논문 생산량

발행연도	국내 학술지 논문	국외 학술지 논문	국외 학술대회논문	계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2001	151(6.29%)	7(0.29%)	2(0.08%)	160(6.67%)
2002	172(7.17%)	10(0.42%)	4(0.17%)	186(7.75%)
2003	174(7.25%)	8(0.33%)	4(0.17%)	186(7.75%)
2004	209(8.71%)	7(0.29%)	7(0.29%)	223(9.29%)
2005	217(9.04%)	10(0.42%)	9(0.38%)	236(9.83%)
2006	241(10.04%)	10(0.42%)	13(0.54%)	264(11.00%)
2007	231(9.63%)	17(0.71%)	9(0.38%)	257(10.71%)
2008	268(11.17%)	13(0.54%)	4(0.17%)	285(11.88%)
2009	303(12.63%)	15(0.63%)	6(0.25%)	324(13.50%)
2010	264(11.00%)	14(0.58%)	1(0.04%)	279(11.63%)
계	2230(92.92%)	111(4.63%)	59(2.46%)	2400(100%)

223편, 교수 1인당 1년에 1.40편이고, 국외 학술 논문의 경우 연평균 11.1편, 교수 1인당 1년에 0.07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외 학술대회 논문의 경우, 연평균 5.9편, 교수 1인당 1년에 0.037편 발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정표(2003)의 연구에서 1967~2002년까지의 연평균 국내 학술논문 수가 63.1편, 1995~2002년까지가 173편으로 나타났고 오세훈(2005)의 연구에서 1996~2004년까지 9년 동안의 연평균 논문 수가 133.7편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 10년 동안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은 어느 시기보다 왕성한 학술 활동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손정표(2003)의 연구에서 2001년과 2002년에 발표된 논문 수가 각각 208편, 261편으로 본 연구의 160편, 186편보다 높게 나온 것은 연구자의 직종과 상관없이 5개 학회지와 학과 창립 기념 논문집에 게재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또한 정진식(2009)의 연구 결과에서 2003~2007년까지의 교수 1인당 1년에 평균 1.16편의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은 분석과정에 해외 학술지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포함하지 않았고 조사 대상이 된 교수 수가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학술지 논문 수의 연도별 분포를 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계속해서 논문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2007년에는 논문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2008~2009년까지 다시 증가하다가 2010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한 양적 증가가 있어왔고, 2000년에 접어들면서도 계속해서 학회지에 실리는 논문

수가 증가해왔는데, 이는 연구자 수의 증가, 교수 연구업적 평가제도의 도입, 학회수의 증가 및 학회지 간행 빈도의 등에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손정표 2003; 오세훈 2005; 정재영, 박진희 2011).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듯 2006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던 학술 논문 수는 2007년과 2010년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 생산성이 안정권에 들어섰거나 다른 요인들(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상대적 감소, 정년 교수의 퇴직 등)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에서 오른쪽 그림은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교수들의 해외 논문(학술대회논문 포함) 생산량의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국외에 발표되는 논문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2007년이 가장 많고 2008년과 2010년에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어떤 학문분야의 국제적 영향력을 평가할 때 주로 해외의 권위 있는 데이터베이스 즉, SCI, SSCI, A&HCI 혹은 ISI 데이터베이스 등에 색인되어 있는 논문의 수가 기준이 되는 것을 볼 때(Kim 2001; Mukherjee 2010) 국내 문헌정보학자들의 국외 논문발표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최희곤(2003)의 연구에서 1971년부터 2002년까지 문헌정보학분야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LISA(*Library & Information Science*)와 ISA(*Information Science Abstracts*)에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로부터 발표된 논문 수가 총 74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10년간의 국외 학술논문 생산량이 총 170편으로 나타난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표 4〉 출생년도에 따른 논문 생산량

출생년도	교수 수(%)	논문 수(%)	1인당 평균 논문 수(편)
1946~1950	29(18.2%)	256(10.7%)	8.8
1951~1955	25(15.7%)	338(14.1%)	13.5
1956~1960	37(23.3%)	674(28.1%)	18.2
1961~1965	32(20.1%)	594(24.8%)	18.6
1966~1970	23(14.5%)	408(17.0%)	17.7
1971~1975	10(6.3%)	104(4.3%)	10.4
1976~1980	3(1.9%)	26(1.1%)	8.7
계	159(100%)	2,400(100%)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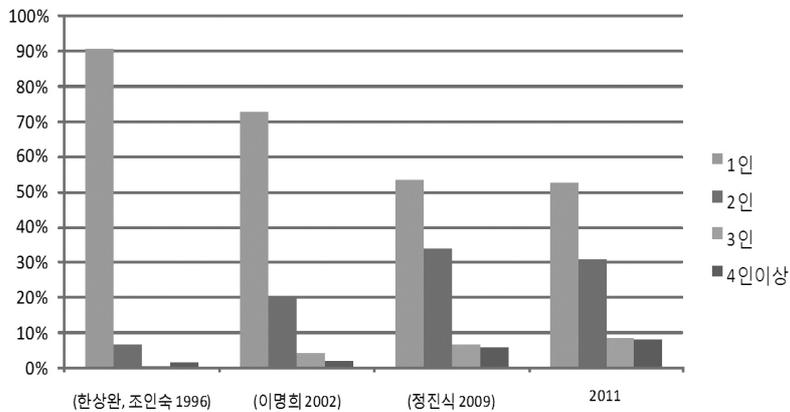
중후반의 교수에 의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956~1965년 사이에 출생한 40대 중후반 및 50대 초중반 교수 수의 비율이 전체 교수의 약 43%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한국의 문헌정보학 연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현재 30대 중후반 및 40대 초중반 교수 33명이 10년 후의 연구 생산성이 가장 높으며 문헌정보학 연구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는 박사학위 취득년도 분포에 따른 논문 생산량을 보여준다. 총 155명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들이 총 2,36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전체 논문 수를 고려하였을 때, 가장 많은

논문은 1991~1995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로 조사되었다. 1인당 평균 논문 수를 고려하였을 때는 1976~1980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가장 높았으나 이는 교수 1명에 의한 논문 수라 평균으로서의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다. 1인당 평균 논문 수는 1981~1985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들이 평균 17.4편으로 높았고, 다음이 1996~2000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평균 16.7편)들 순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1976~1985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이 연구를 이끌고 있고 그 뒤를 90년대 이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들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표 5〉 박사학위 취득년도에 따른 논문 생산량

박사학위 취득년도	교수 수(%)	논문 수(%)	1인당 평균 논문 수(편)
1976~1980년	1(0.6%)	37(1.6%)	37.0
1981~1985년	5(3.2%)	87(3.7%)	17.4
1986~1990년	9(5.8%)	114(4.8%)	12.7
1991~1995년	62(40.0%)	971(41.0%)	15.7
1996~2000년	33(21.3%)	551(23.3%)	16.7
2001~2005년	31(20.0%)	466(19.7%)	15.0
2006~2010년	14(9.0%)	142(6.0%)	10.1
계	155(100%)	2,368(100%)	17.8



〈그림 5〉 저자 수에 따른 논문 비율

보인다.

논문의 저자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2,400편의 논문에 대한 총 저자의 수는 4,246명으로 논문 1편당 평균 저자 수는 1.77명으로 나타났다. 저술 유형에서는 단독연구가 전체의 52.75%(1,266건)이고, 공동연구가 47.25%(1,134건)이었다. 한상완과 조인숙(1996)의 연구에서 단독연구가 90.0%, 공동연구가 9.1%였고, 이명희(2002)의 연구에서는 단독연구가 73.53%, 공동연구가 26.47%인 것을 고려하면 단독연구의 비율이 낮아지고 공동연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진식(2009)의 연구에서도 단독연구가 53.6%이고 공동연구가 46.4%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 5〉에서는 저자 수에 따른 논문 비율을 보다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동연구의 경우 2인 공동연구가 전체의 30.75%(738건), 3인 공동이 8.47%(202건), 4인 이상이 8.08%(194건)로 나타났다. 정진식(2009)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2인 공동연구의 비율은 비슷했으나 3인 공동 및 4인 이상 공동연구의 비율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현상은 문헌정보학 연구가 인문과학적 성격에서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적 성격으로 변함에 따라 프로젝트형식의 연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한상완, 조인숙 1996; 이명희 2002).

4.3 학교별 분석

2001~2010년까지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전임강사 이상)들이 발표한 논문 수를 소속대학별, 박사학위 취득학교별 및 학위유형별(국내학위 및 해외학위)로 분석하였다. 소속대학별 논문 생산량은 아래 〈표 6〉과 같다. A대학교 문헌정보학과가 가장 높은 생산량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B대, C대, D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논문 생산량만 고려하는 경우, E대, G대, I대, J대, L대 등이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D대, F대의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해외 논문 수(해외 학술대회 논문 포함)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총 논문 수나 국내 논문만을 고려한

〈표 6〉 대학별 논문 생산량(상위 10개교)

	총 논문 수(편)	국내 논문 수(편)	해외 논문 수(편)	교수 1인당 평균 논문 수(편)
1	A대(179)	A대(177)	D대(26)	A대(35.8)
2	B대(151)	B대(146)	Q대(26)	C대(32)
3	C대(128)	C대(126)	F대(16)	O대(28)
4	D대(121)	G대(103)	K대(15)	B대(21.57)
5	E대(113)	E대(103)	H대(12)	D대(20.17)
6	F대(110)	I대(97)	E대(10)	H대(20)
7	G대(108)	D대(95)	M대(8)	Q대(19.5)
8	H대(100)	F대(94)	N대(7)	E대(18.83)
9	I대(99)	J대(91)	O대(5) G대(5) B대(5) P대(5)	J대(18.4)
10	J대(92) K대(92)	L대(90)		F대(18.33)

Note. 〈표 6〉의 대학별 논문 생산량은 양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논문의 질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학교별, 학과별, 교수별 등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음.

경우에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Q대, H대, M대, N대 등이 상위 10개교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대와 K대의 경우는 외국인 교수의 해외 논문이 해외 논문 생산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별 교수 수를 고려하는 경우(교수 1인당 평균 논문 수), O대의 논문 생산량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문헌정보학 교수의 박사학위 취득학교별 논문 생산량을 보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총 논문 수를 기준으로 볼 때, A대, H대, M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들의 논문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위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문헌정보학과 전체 교수의 약 56%에 해당하는 87명이 3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이들은 지난 10년간 총 논문 수의 54.4%(1307편)를 발표하였다. 국내 논문만을 고려한 경우 생산량에 따른 순위변화는 거의 없었고, 해외 논문 수를 고려한 경우는 상당수가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

수 1인당 평균 논문 수를 고려한 경우, B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 박사 취득교수의 논문 생산성이 높게 나왔다. 학위 취득 유형(국내 및 해외)에 따른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 수를 분석한 결과 〈표 8〉에서 제시된 것처럼 지난 10년간 국내 학위를 소지한 교수들은 국내 학술 논문을 평균 13.46편 발표하였고, 해외 학위를 가진 교수는 평균 15.5편 발표하여 해외 학위를 소지한 교수들이 국내학위를 소지한 교수들과 비교하여 국내 논문을 평균 2편(약 1.15배)정도 더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학위를 소지한 교수들이 국내학위를 소지한 교수들에 비해 해외 논문을 10년 동안 약 2.5편 더 발표하였는데 이는 국내학위를 소지한 교수들과 비교하여 약 7.5배 높은 것이다.

〈표 7〉 박사학위 취득학교별 논문 생산량(상위 10개교)

	총 논문 수(편)	국내 논문 수(편)	해외 논문 수(편)	교수 1인당 평균 논문 수(편)
1	A대(542)	A대(535)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22)	Univ. of California at Los Angeles(30.5)
2	H대(446)	H대(429)	Univ. of Wisconsin at Madison(19)	Case Western Reserve Univ.(27)
3	M대(319)	M대(301)	M대(18)	Univ. of Wisconsin at Madison(24.2)
4	B대(140)	B대(138)	H대(17)	Univ. of Texas at Austin(22)
5	Univ. of Wisconsin at Madison(121)	Univ. of Wisconsin at Madison(102)	Rutgers, the State Univ. of New Jersey(15)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20)
6	Indiana Univ. Bloomington(86)	Indiana Univ. Bloomington(85)	Case Western Reserve Univ.(13)	Syracuse Univ.(18)
7	Rutgers, the State Univ. of New Jersey(83)	Rutgers, the State Univ. of New Jersey(83)	University of Manchester(12)	Univ. of Northumbria at Newcastle(18)
8	Case Western Reserve Univ.(81)	Case Western Reserve Univ.(68)	Univ. of Michigan at Ann Arbor(11)	The Univ. of Sheffield(18)
9	F대(57)	Syracuse Univ.(45)	Syracuse Univ.(9)	B대(17.5)
10	Syracuse Univ.(54)	Univ. of Texas at Austin(42)	A대(7)	Indiana Univ. Bloomington(17.2)

〈표 8〉 학위유형별 국내외 논문 비율

	교수(명)	국내 논문 수(편)	평균 국내 논문 수(편)	해외 논문 수(편)	평균 해외 논문 수(편)
국내학위 교수	115	1,548	13.46	44	0.38
해외학위 교수	44	682	15.5	126	2.86
계	159	2,230	14.48	170	1.62

4.4 학술지별 분석

하나의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어떤 학회지에 논문을 많이 게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연구자들의 연구행태를 파악할 수 있고(조인숙, 한미숙 2007), 학회지의 성격에 따른 연구동향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2001~2010)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를 분석하였다. 한국 연구재단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대해서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등재지가 등재 후보지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Ko, Cho, and Park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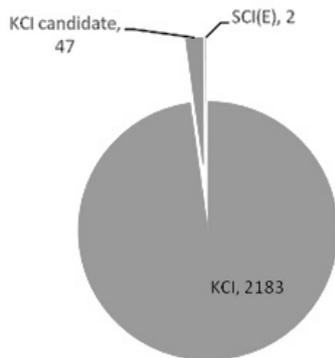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는 국내 학술지 논문이 총 2,230편이었는데 〈그림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 등재지에 발표된 논문이 총 2,183편(97.9%)이었고, 47편(2.1%)만이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 등재 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이었다. 또한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2편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등재지이면서 각각 SCI와 SCI(E)에 등재된 학술지(*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에 발표하였다. 학술발표 논문을 제외한 해외 학술지 논문은 총 111편이었으며, 81편(72.97%)은 SSCI 등재 학술지, 5편(4.5%)은 SCI(E)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13편(11.71%)은 SCOPUS 등재 학술지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이는 문헌정보학분야 교수들이 게재한 전체 해외 학술 논문(학술발표 논문 제외) 가운데 약 89%의 논문이 SSCI, SCI(E) 및 SCOPUS 등재학술지에 발표된 것으로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해외 논문이 전반적으로 국제적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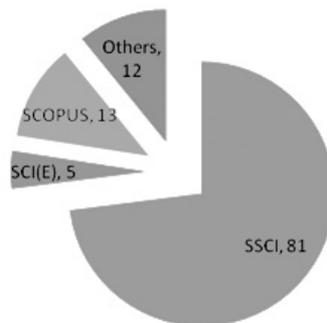
〈표 9〉는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이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를 논문 수에 따라 상위 10종을 나열한 것이다. 특히 국내 문헌정보학 대표

학술지 6종 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서지학연구』, 『정보관리연구』 등에 전체 국내 논문 수의 92.3%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의 연구가 학제적 학문의 성격에 비해 편협한 것을 보여준다. 또한 1996~2005년에 5개 학회지를 대상으로 연구한 조인숙과 한미숙(2007)의 분석에서의 동일하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의 순으로 논문 게재가 많았으나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경우 조인숙과 한미숙(2007)의 연구와 다르게 논문 게재 수가 『서지학연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헌정보학 관련 연구가 예전보다 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문헌정보학 교수들의 해외 논문 게재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이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가 15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에 11편, *Electronic Library*에 9편, *Scientometrics*에 8편, *Journal of Infor-*



〈그림 6〉 국내 학술논문 등재 유형



〈그림 7〉 해외 학술논문 등재 유형

〈표 9〉 발표 논문 수에 의한 국내 학술지(상위 10종)

	학술지명	논문 수
1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9
2	한국문헌정보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7
3	정보관리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42
4	한국비블리아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7
5	서지학연구(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204
6	정보관리연구(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138
7	한국기록관리학회지(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54
8	서지학보(SEOJIHAKBO)	14
9	기록학연구(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0
10	인문학논총(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0
	기타 53종	83
	계	2,228

〈표 10〉 발표 논문 수에 의한 해외 학술지(상위 10종)

	학술지명	논문 수	등재DB
1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15	SSCI
2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1	SSCI
3	Electronic Library	9	SSCI
4	Scientometrics	8	SSCI
5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6	SSCI
6	IFLA Journal	5	
7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4	SSCI
8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	SSCI
9	College & Research Libraries	3	SSCI
10	Information Research-an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3	SSCI
	기타 32종	43	
	계	111	

ation Science에 6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희곤(2003)의 연구와 비교하여 최근 10년간 게재된 해외 학술지 논문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연구자들이 게재하는 해외 학술지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희곤(2003)의 연구에서와 같이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에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된 것을 볼 때

몇몇 학술지에 대한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선호도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게재 논문 수에 의한 상위 10종의 해외 학술지 가운데 9종이 SSCI 등재 학술지이고, 상위 5종의 학술지 가운데 2010 JCR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가 0.489인 *Electronic Library*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가 1.0을 웃도는 수준 높은 학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

〈표 11〉 발표 논문 수에 의한 해외 학술대회(상위 5개)

	학술회의명	논문 수
1	Proceedings of the ASIST Annual Meeting	19
2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10
3	Proceedings of the Text Retrieval Conference	7
4	Aslib Proceedings	3
5	Proceedings of SPIE -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Optical Engineering	2
	기타 18종	18
	계	59

합하면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은 해외 학술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SSCI 등재 학술지를 선호하며, 영향력 지수가 높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국내 문헌정보학의 국제화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2005)의 연구에서 문헌정보학 논문에서 인용된 타 학문 분야를 분석한 경우 주제별로 나열하는 경우 컴퓨터 공학이 전체의 21.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산학과 관련이 많은 정보학관련 연구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산학 분야에서는 타 학문분야에 비하여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인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계량서지분석에서 학술대회 논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Glanzel, Schlemmer, Schubert, and Thus 2006; Lisee, Lariviere, and Archambault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정보학 교수들이 게재한 국외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nual Meeting*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의 경우 학술발표 논문을 묶어 단행본으로 발간되

는 것으로 주로 컴퓨터공학관련 연구가 게재되고 *Proceedings of the Text Retrieval Conference*의 경우 정보검색관련 연구가 중심인 것을 볼 때 정보학관련 연구가 학술대회 논문으로 많이 발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이 지난 10년 동안(2001~2010) 발표한 학술논문을 토대로 문헌정보학 연구자 및 연구업적을 계량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 총 159명의 평균 나이는 만 51.7세였고, 전체 교수의 74%가 1951~1970년에 출생하여 이들이 국내 문헌정보학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의 박사학위 수여년도는 1977년부터 2010년이었고 1991~1995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 수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모든 교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해외 박사학위를 소지한 문헌정보학과 교수 수는 1976년부터 1995년까지 증가하다가 1996~2000년과 2006~2010년

에는 감소하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국내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 대비 해외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 비율을 비교하면 1996~2000년이 7.9:2.1인 것을 비롯하여 2001~2005년과 2006~2010년에 각각 6.1:3.9, 5.7:4.3이 되면서 해외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문헌정보학 교수로 임용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둘째,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240편, 교수 1인당 연평균 1.5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 학술논문의 경우 연평균 223편, 교수 1인당 연평균 1.40편이고, 국외 학술논문의 경우 연평균 11.1편, 교수 1인당 연평균 0.07편 발표하였다. 또한 국외 학술대회 논문의 경우, 연평균 5.9편, 교수 1인당 1년에 0.037편 발표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1995년부터 2002년까지가 173편이었고, 1996년부터 2004년까지 9년 동안의 연평균 논문 수가 133.7편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 10년 동안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은 어느 시기보다 왕성한 학술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1971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로부터 발표된 해외논문 수가 총 74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10년간의 국외 학술논문 생산량(총 170편)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헌정보학 연구의 저자별 분석에서는 1956~1965년 사이에 출생한 40대 중후반 및 50대 초중반 문헌정보학과 교수 수의 비율이 전체 교수의 약 43%를 차지하였고, 1인당 평균 논문 수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논문 저술 유형에서는 단독연구가 전체의 52.75%(1,266건)이고, 공동연구가 47.25%(1,134건)로 기존의 선

행연구와 비교하여 단독연구의 비율이 낮아지고 공동연구가 많아지고 있었으며, 공동연구의 경우 2인 공동연구가 전체의 30.75%(738건), 3인 공동이 8.47%(202건), 4인 이상이 8.08%(194건)로 나타났다. 특히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3인 공동 및 4인 이상 공동연구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문헌정보학 연구가 인문과학적 성격에서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적 성격으로 변함에 따라 프로젝트형식의 연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한상완, 조인숙 1996; 이명희 2002).

넷째, 대학별 논문 생산량 순위는 기준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문헌정보학 교수의 박사학위 취득학교별 논문 생산량을 보면 해외 논문 수를 고려한 경우 대부분이 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학교별 1인당 평균 논문 수를 고려한 경우, 상위 10개 대학 중 9개가 해외대학으로 나타나 해외 박사 취득교수의 논문 생산성이 높게 나왔다. 학위 취득 유형(국내 및 해외)에 따른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 수를 분석한 결과 해외학위를 소지한 교수들이 국내학위를 소지한 교수들보다 지난 10년간 국내 논문은 평균 2편(약 1.15배), 해외 논문은 평균 2.5편(약 7.5배) 더 발표하였다.

끝으로, 문헌정보학 교수들이 발표한 국내외 학술지 및 해외 학술발표 논문을 조사한 결과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 6개 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서지학연구』, 『정보관리연구』에 전체 국내 논문 수의 92.3%가 집중되어 있어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의 연구가 학제적 학문의 성격에 비해 편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경우 선행연구와 달리 논문 게재 수가 『서지학연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헌정보학 관련 연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학술지 논문(해외 학술발표 논문을 제외)은 총 111편이었으며, 81편(72.97%)은 SSCI 등재 학술지, 5편(4.5%)은 SCI(E)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13편(11.71%)은 SCOPUS 등재 학술지로 나타나 약 해외 학술지 논문의 89%가 SSCI, SCI(E) 및 SCOPUS 등재학술지에 발표되어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해외 논문이 전반적으로 국제적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학술발표는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nual Meeting*,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Proceedings of the Text Retrieval Conference*

에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이들 학술대회가 컴퓨터 공학 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것을 볼 때 정보학관련 연구가 학술대회 논문으로 많이 발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의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논문발표실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문헌정보학 연구자, 연구 생산성 및 연구자들의 연구행태 등을 파악하였다. 이는 학술 논문의 서지정보를 이용한 계량 분석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학술 논문의 참고문헌 및 인용관계에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 저자 수와 역할 및 학술지의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등을 고려한 연구업적의 정성적 분석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1] 문경민. 1993.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2] 손정표. 2003.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9-32.
- [3] 손정표. 2003b.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1959~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4): 21-42.
- [4] 송정숙. 2010. 한국 문헌정보학의 연구현황 분석: 2001년~2010년 발행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333-353.
- [5] 오세훈. 2005.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 및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3): 379-408.
- [6] 윤희윤, 김신영. 2005. 학술지 영향계수와 연구업적 평가비중의 상관성 분석. 『정보관리연구』, 36(3): 1-25.

- [7] 이명희. 2002.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287-310.
- [8] 정재영, 박진희. 2011.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장연구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171-192.
- [9] 정진식. 2001.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 ~ 20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3): 55-78.
- [10] 정진식. 2009. 교수연구업적 평가분석: 문헌정보학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2): 129-142.
- [11] 조인숙, 한미숙. 2007. 문헌정보학분야 연구자들의 학회지 게재논문과 인용학술지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89-105.
- [12] 최희근. 1999.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16(3): 137-157.
- [13] 최희근. 2001. 국제학술지(SSCI)에 등재된 논문을 통한 국내 문헌정보학자들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2): 5-21.
- [14] 최희근. 2003.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동향 분석: LISA & ISA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1): 61-79.
- [15] 한상완, 조인숙. 1996. 문헌정보학분야 학회지의 논문분석. 『도서관』, 51(1): 114-139.
- [16] Adkins, D., & Budd, J. 2006. "Scholarly productivity of U.S. LIS facult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8: 374-389.
- [17] Glanzel, W., Schlemmer, B., Schubert, A., & Thus, B. 2006. "Proceedings literature as additional data source for bibliometric analysis." *Scientometrics*, 68(3): 457-473.
- [18] Huanwen, C. 1996. "A bibliometric study of library and information research in China." *Asian Libraries*, 5(2): 30-45.
- [19] Khan, M. S. I., Ahmed, S. M. Z., Munshi, N. U., & Akhter, N. 1998.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terature in Bangladesh: A bibliometric study." *Malaysian Journa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3(2): 11-34.
- [20] Kim, M-J. 2001. "A bibliometric analysis of physics publications in Korea, 1994-1998." *Scientometrics*, 50(3): 503-521.
- [21] Ko, Y. M., Cho, S-R., & Park, Y. S. 2011. "A study on the optimization of KCI-based index (Kor-Factor) in evaluating Korean journals." *Scientometrics*, 88: 61-71.
- [22] Lisée, C., Larivière V., & Archambault, E. 2008. "Conference proceedings as a source of scientific information: A bibliometric 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9(11): 1776-1784.
- [23] Mukherjee, B. 2010. "Assessing Asian scholarly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 quantitative view as reflected in Web of Knowledg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6(1): 90-10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Mun, Gyeong-Min. 1993. *(An) Analysis of the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2] Sohn, Jung-Pyo. 2003.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1957~2002.”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3): 9-32.
- [3] Sohn, Jung-Pyo. 2003b.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the master’s & doctor’s dissertations in the field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1959~2002.”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4): 21-42.
- [4] Song, Jung-Sook. 2010.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Focused on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from 2001 to 2010.”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333-353.
- [5] Oh, Se-Hoon. 2005.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by analyzing journal articles and the cited literatur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3): 379-408.
- [6] Yoon, Hee-Yoon, & Kim, Sin-Young. 2005. “An analysis on correlations between journal impact factor and research performance evaluation weight.”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6(3): 1-25.
- [7] Lee, Myeong-Hee. 2002. “Recent trends in research metho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3): 287-310.
- [8] Chung, Jae-Young, & Park, Jin-Hee. 2011. “Analysis of the trends in the field studi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171-192.
- [9] Chung, Jin-Sik. 2001.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1996~200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3): 55-78.
- [10] Chung, Jin-Sik. 2009. “A study on assessment of faculty performance in research

- achievement: A focu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iel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2): 129-142.
- [11] Cho, In-Sook, & Han, Mi-Sook. 2007. “An analysis on the articles and cited journals suggested by LIS researchers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8(2): 89-105.
- [12] Choi, Hee-Kon. 1999.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pattern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6(3): 137-157.
- [13] Choi, Hee-Kon. 2001. “A study on the research patterns of domestic library & information professors through analysis of articles covered by SSC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2):5-21.
- [14] Choi, Hee-Kon. 2003. “A study on the research patterns of domestic library & information researchers through LISA & IS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1): 61-79.
- [15] Han, Sang-Wan, & Cho, In-Sook. 1996. “Munheonjeongbohak Bunya Hakhoijui Nonmun Bunseok.” *Doseogwan*, 51(1): 114-139.